

Youngeun News

동행

7월

2024년 455호



“소리”

세상 소리 요란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곳에 머무르는
나직한 속삭임.

세상 소리 귀 막으면 그때서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낮은 말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7~8) **중독**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5호 / 2024. 7. 7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소리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더 나은 의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 이에리아 목사

08 동행

사회 혼란 속에서도 성장하는 미안마 교회 / 최동익 선교사

10 웹진 동행

영등포노회 30개 교회에서 450여 명이 참여 / 진수연 권사
인강평강교회 선교보고 / 송도숙 권사 (2여전도회 회장)
기다리던 1여전도회 야외예배 / 김혜선 집사 (1여전도회)
고등부 전도축제 / 이승혜 교사 (고등부)

15 영은소식

제24회 영등포노회체육대회, 영은교회 우승 / 이기승 집사
늘푸른학교 야외학습 / 박정수 명예집사
2024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수료 / 이덕형 안수집사
6개 찬양대와 2개 특별찬양단이 드린 음영부 헌신예배 /
서상희 통신원(음영부)
박길혜 권사 찬양대 40년 근속 / 김경원B 기자

20 신앙의 유산

전도 노장(老將), 송준근 은퇴장로 <1> / 송준근 은퇴장로

22 간증문

내 인생의 첫 노방전도 / 추지현 성도

23 녹색교회 : 녹색계명

녹색 제5계명 :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24 교회안내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e, 더 나은 의

(마태복음 5:21~26)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더 나은 의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란 율법주의가 낳은 ‘자기 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문자적 의와 전혀 다른 ‘의’를 강조하시며, 이를 ‘더 나은 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예수님은 율법에 철저한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의는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의였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만 범하지 않으면, 그 속은 어떻든 관계없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되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놓친 채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더 나은 의는 형식이나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문구로 대조를 만들며 더 나은 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5:21)

율법에는 ‘살인’과 관련된 계명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민35:33)’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앗아 갔다면, 그 피는 땅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앞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민34:35).”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과 관련된 율법에는 사실 금지 명령보다 '생명을 존중하라' 는 적극적 행동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우고 가르친 것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였습니다.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재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 재판소였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

'라가' 는 유대인들의 욕설로 직역하면 '헛된 놈', '바보 같은 놈'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편견과 시기, 중상모략, 투기,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모든 무책임한 말, 음모, 헛소문 퍼뜨리는 것, 수군거리는 것 등 모든 것이 '라가' 에 포함됩니다. 또 '미련한 놈' 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놈', '하나님 앞에서 천벌 받을 놈'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을 다 만드셨는가?"라고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분노하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 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자기 마음입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이미 내 속에서 상대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살인이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 는 계명은 살인을 금하는 세상의 법과는 다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살인 행위 자체를 정죄했다면,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은 살인 행위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살인 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 문제삼습니다. 살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 속에 살의를 품은 것과 그런 마음으로 내뱉는 말들도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직접적인 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댓글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합니다. 이런 악의적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살인이 횡행하는데도 '나는 살인한 일이 없다' 고 시치미를 떼는 시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는 계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에게 바보라고 함부로 말했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아래에서 '더 나은 의' 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인을 유발하는 그릇된 마음을 다스리는 것까지를 요구합니다. 과연 더 나은 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더 나은 의를 위한 화평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마5:25)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미움을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사화(私和)’는 법으로 처리할 송사(訟事)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거나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길에 있을 때’는 ‘재판정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여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화평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골 3:15)


갈등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의를 위한 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혀가 범하는 범죄에 대하여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약3:6)”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혀에서 비롯된 엄청난 파괴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독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또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경고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바다의 동물이나 심지어 벌레나 곤충도 길들일 수 있지만,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나 법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노력하는 삶, 말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Innovate’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글 | 이에리아 목사

2004년 북경 코스타(KOSTA)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인사를 건넬 것 같습니까? 대부분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안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1.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 1) 개인적인 관계 :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며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매순간 지속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 2) 삶의 변화 :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실천을 합니다.
- 3) 신앙의 확신 :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2.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1) 성경 읽기 :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 2) 기도 :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예배와 찬양 : 예배와 찬양은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 4) 공동체와의 교제 :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간증들을 나눕니다.
- 5) 영적 훈련 : 기도, 말씀, 큐티, 장년신앙교육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 | 최동익 선교사

사회 혼란 속에서도 성장하는 미얀마 교회



유치원 사역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영은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최동익, 방영희 선교사는 2001년부터 미얀마에서 유치원 사역과 민족 기숙사 사역, 교회 사역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양곤에서 교회사역과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과 사역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얀마 상황 :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가 감금되어, 미얀마는 하루아침에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항쟁은 점차 군부에 대항하는 국민방위군으로 바뀌어, 전투의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얀마의 내전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내전으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제

한되면서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물가가 3배나 오르는 등 국민의 삶과 생활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군부와 국민방위군과의 오랜 전투로 군부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얼마 전 18세~35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의무 징병제’를 발표해 미얀마 국민의 분노는 더욱 끓어 올랐고,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전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체감 온도 5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시민들은 폭염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교회사역 : 이동금지법 발효로 시작된 교회사역

이러한 혼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0월, 지역 간 이동금지와 제한된 생활에 갇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무렵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친 일꾼들이 지역 간 이동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역지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동금지가 해제되면서는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과 유치원을 졸업한 한 원아가 예배 참석자의 전부였는데, 그 원아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시작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면 교회로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 광고하였는데, 이 생각이 잘 들어맞아 한글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참석한 청소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부모님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경공부 후 식사


예배드린 후 식사대접을 하며 차츰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 부모님 중 몇몇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 현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부활절에는 4명의 세례자가 잉태되었습니다. 미얀마는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종족은 버마족으로 다른 종족에 비해 복음 전도율이 상당히 낮고 개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4명의 세례자 중 3명이 버마족이었습니다. 미얀마는 세례를 줄 때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보통 이 문제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

례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세례받으라고 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 기타소식 : 교회 트럭 운행과 유치원 사역

그밖에 주일 예배 후의 한글교육과 성경공부,기도회를 통해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승용차로 3~4번씩 운전하여 성도들을 데려다주어야 했었는데, 얼마 전 1톤 트럭을 구입하게 되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무더위 속에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사역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방과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명 원아가 졸업하였고, 현재는 유치원 교사 4명, 원아들 20여 명이 남아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정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면 원아들이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트럭을 타고 있는 성도들



글 | 진수연 권사

영등포노회 30개 교회에서 450여 명이 참여


- 제21회 영등포노회 권사세미나 -

지난 6월 13일, 영등포노회 여전도회연합회 교육부가 주최한 제21회 권사세미나가 영은교회에서 진행됐다. 로마서 15장 13절(“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을 주제로 말씀으로 개최된 이번 권사세미나에는 영등포노회 30개 교회에서 4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장 이미경 장로(남도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영등포노회 권사들이 선교여성으로 세워진 지도자로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영등포노회 여전도회가 3대 목적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를 잘 계승하며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영은교회 이승구 담임목사님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를, 갈등을 유발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보살핌’의 논리>로 따뜻하게 만들기를 당부했다. ‘보살핌’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리로서 인격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단한 애굽살이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살피심으로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 보살피며 공감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산본교회 이상갑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과 기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단적 믿음이나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닌 ‘성경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단이나 자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찰스 스탠리 목사의 책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나오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말씀묵상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글 | 송도숙 권사 (2여전도회 회장)

안강평강교회 선교보고

- 2여전도회 후원 미자립교회 -

우리 교회의 각 여전도회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국내선교부에서 선정한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다. 2여전도회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41번지에 위치한 안강평강교회다. 예장통합 안강평강교회는 2017년 9월, 5명의 성도가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2022년 5월 29일에는 설립예배를 드렸다. 지난 6월 1일, 안강평강교회 유영직 담임목사가 선교보고 글을 2여전도회에 전해와 함께 공유한다.

5월의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논마다 모심기가 한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강평강교회를 섬기는 유영직 목사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에 보내주신 사랑의 선교 헌금은 잘 받았습니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교회를 가까이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편해



안강평강교회, 담임 유영직 목사(앞줄 중앙)

서인지 전도하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어 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교회와 생활이 어려워져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폐콘크리트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먼지와 소음이 심해서 마스크와 귀마개를 끼고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집사람 김경희 전도사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공부방을 열어서, 대면으로 2명을 수료시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의 집회는 주일 낮 예배는 10명에서 11명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찬양예배는 1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에는 6명이 적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찬양)
2. 교회에 필요한 사람,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3.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4.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5.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약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시금 첫사랑, 첫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더 많은 교회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의 웹진 동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김혜선 집사 (1여전도회)

기다리던 1여전도회 야외예배

지난 6월 20일 목요일에 1여전도회 30여 명의 회원은 기다리던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5월 향존직 선거와 권사 세미나에 밀려서 이제야 야외예배를 가게 됐다. 여름의 시작이 지나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순 없었지만, 비를 염려하던 우리의 기도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양주 물맑음 수목원으로 출발했다. 출발 전 모두 버스에 탑승하여 10분 동안 예배를 드렸다.

1여전도회 담당 신요한 목사님께서 “눈을 높이 들어”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경청하며, 예배를 마치고 9시에 출발했다. 가는 버스 안에서 임원진의 준비된 섬김 속에 각자 자기소개와 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또 넉센스퀴즈와 성경퀴즈를 통해 모두 한바탕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1시에 예약된 햇살촌 식당에 도착해서 제주 은갈치 시래기 정식으로 우리의 입을 호강시켜주었고, 후식으로 나온 달고 시원한 수박으로 내내 웃음과 기쁨이 계속되었다. 식사 후 물맑음 수목원으로 출발했다. 도착해서 모두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잠시 목재 체험장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왔다. 임원진의 사랑으로 준비한 아이스커피는 우리를 뜨거운 더위를 식히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원 그 자체였다.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손에 들고 걸어가며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르른 녹음 속을 걸어가며 포토 시간을 가졌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멋진 포즈를 취하며 즐겁게 사진을 찍었다. 어느새 모두 물소리를 따라 계곡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돌 자리에 앉아서 양말을 벗고, 시원한 계곡 물속에 발을 담그며 환호성을 치고 즐거워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오후 2시 30분에 버스에 탑승하였고, 잠시 내려서 작은 카페였지만 최고로 맛있는 팔빙수를 먹었다. 또한 번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밀려왔다. 이 행복한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임원진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과 동행해 주신 신요한 목사님, 우리를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박신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정을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고 멋진 하루를 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행**





글 | 이승혜 교사 (고등부)

고등부 전도축제

- 백데이 -

고등부 전도축제가 <백데이>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고등부의 “전도다다케(전도훈련)”는 단순히 새로운 친구들을 교회에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 교회에서 얼굴을 보기 힘든 장기결석자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했다. 그래서 전도축제 전 3주간의 <백데이> 준비과정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장기결석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데이> 포토존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온 영혼들을 환영하기 위해 <Welcome-Back>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축제를 장식했다. 5월 19일 전도축제날에는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은 4명의 친구와 새친구 1명까지, 선생님을 포함한 고등부 인원 총 53명이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다시 돌아온 친구들을 환대해 기쁘게 맞이하는 의미로 고등부 친구들이 직접

준비한 연극공연이 있었다.

이후 8층 옥상으로 올라가 본격적인 전도축제를 즐겼다. 8층에는 전날부터 선생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여러 가지 놀거리와 먹을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입구에 준비된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전도축제가 단순히 전도축제 당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보다 즐겁고 새로운 예배의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후 2주간은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축제의 뒤를 이어갔다.

5월 26일에는 옥상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전도다다케 기간동안에 홍보했던 고등부 <복권> 포스터에서 첫 번째 복권이 가진 뜻은 “복음을 권하다”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과 같이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그러나 세상 소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소리(말씀)를 찾아가며 드리는 예배였다.

6월 2일은 전도다다케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예배는 6층 체육관에서 드렸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다. <복권: 권세를 되찾다>라는 주제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찾은 이곳에 모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글 | 이기승 집사 (7남선교 회장)

제24회 영등포노회체육대회, 영은교회 우승

제24회 영등포노회체육대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다. 영등포노회 소속 총 16개 교회가 이번 노회체육대회에 출전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승기와 우승컵을 거머쥔 영은교회

먼저 우리 영은교회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우리 교회의 단합된 힘과 열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다. 선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덕분에 얻은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승리였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비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

니 마음이 아팠다. 다음 대회는 날씨가 좋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남선교회 임원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선교회 임원들은 경기 준비와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여전도회 회원들은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랜만에 다시 체육대회 시간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날씨와 함께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남선교회가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동행**



우승한 영은 배구팀(하늘색 선수복)의 시합 장면



글 | 박정수 명예집사

늘푸른학교 야외학습

늘푸른교회학교에서는 지난 5월 22일(수)~23일(목)까지 군산으로 야외학습을 다녀왔다. 다음은 늘푸른학교 학생의 소감문이다.

늘푸른학교 야외학습에 동참하다는 생각으로,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설렘에 밤잠을 설쳤다.

야외학습 당일, 이름표를 받아 목에 걸고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축도와 배웅 속에 버스에 올랐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우거진 숲의 청량함과 들판에는 요즘 한창 익어가는 청보리가 바람에 넘실거렸다. 김제에 도착한 후, 금산사 입구에 있는 한일관에서 더덕구이 산채정식을 먹었다.

금산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김종원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전통 한옥으로, 남녀가 구분하여 다른 출입문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다. 기념촬영을 한 후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 송현을 교감의 넉센스 퀴즈가 버라이어티쇼를 보는 것 같이 참 재미있었다.


선유도에서는 유람선 관광을 했다. 푸른 물결과 기암 절벽을 보며 시원한 서해의 해풍을 맞았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사색을 하고 있으니, 여성 분께서 새우깡 한 봉지를 건네 주었다. 그 온정과 손길에 큰 위안을 받았다. 같이 앉은 관광객 역시 내게 초콜릿을 나눠주었다. 상상을 초월할 깊은 감동이 느껴졌다.

차장 너머로는 광활한 새만금 방조제가 보였다. 자

연이 주는 노을빛의 경이로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한진구 목사님의 '갈증'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군산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였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았다. 특히 김수진 선생님은 주변을 챙기느라 동분서주 움직였는데, 그 작은 체구로 서로 나누고, 챙기고, 손잡아주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후 방문한 서천 국립생태원에서는 아열대 식물과 북극곰, 펭귄이 우리를 맞이했다. 서천 특화시장을 구경한 후, 교회로 돌아왔다.

누군가 내게, 당신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데 묻는다면, 내가 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고 답할 것이다. 그 분은 그저 내 마음 속에 계신 분이였다. 또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수료

교육3부는 2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4년도 장년신앙교육의 상반기 과정으로 <중보기도자학교>와 <성경의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신학세계>를 비롯한 총 7개 과목을 현장 및 온라인 강의로 개설하였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달 넘게 진행된 교육을 잘 마무리하였고, 총 279명이 장년신앙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식은 6월 9일 주일 오후 예배시간에 수료소감문 발표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7개 개설 과목의 소감문을 소개한다.

정리 : 이덕형 안수집사 (교육3부)

■ 성경의 키워드로 풀어나가는 신학세계

- 강사 : 백충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백충현 교수님의 강의는 일방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만으로 막연하게 일상을 보내던 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유와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상기하게 해주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신비로운 세상이 열리게 됨을 깨닫게 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예배와 찬양으로 교회에 모이며, 세상에서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했다.



글 | 김미영 집사

■ 존 번연과 함께하는 고전산책

- 강사 : 최광주 목사

8주 동안 크리스천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마치 천국을 견학하고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내 영혼의 끈을 단단히 매야겠다. 그리하면 세상의 유혹을 가려낼 분별력을 기르고, 무지해서 형식만 갖추는 유사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소망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던 독서였는데 장년 성경공부 덕분에 필독서 한 권을 끝낼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쁘다.



글 | 윤정림 집사

■ 호락호락(好樂好樂)한 신약통독

- 강사 : 이준희 목사

“우리는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합니다!” 48개 모든 강의 영상을 마치며 목사님은 구호를 외치셨다. 하루 약 5장 분량의 통독, 암송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차분하지만 힘있는 해설과 퀴즈는 수강생의 마

음을 호락호락하도록 해 주셨다. 강의를 듣는 동안 목사님의 진지함 뒤에 숨겨져 있는 유쾌함이 좋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듯 하여 좋았다.



글 | 윤원백 집사

매일 아침 6시 30분, 어김없이 올라오는 목사님의 영상에 무조건 반사로 반응했던 시간이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점차 은혜로 변해갔다.

■ 한국교회사 톺아보기

- 강사 : 한진구 목사

어려울 수도 있는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한진구 목사님께서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쉬운 강의로 알찬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반도 땅에 와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들, 특히 일제 강점기의 핍박과 고통은 가슴 아팠다.



글 | 박건상 집사

이번 강의를 통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장점을 잘 이어나가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은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였다.

■ 예수동행일기

- 강사 : 신요한 목사

비오는 날 새벽기도 가는데 예수동행일기 내용 중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우리도 손잡고 가요” 하며 예수님 손잡고 신호등 앞에 섰다. 사실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다. 요즘은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계신 것 같아 멈춰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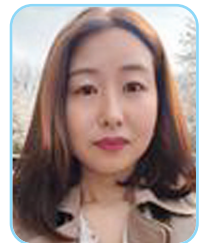
글 | 유순자 권사

목사님이 권해주신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고 기도를 시작해 본다.

■ 말씀에 목마른 당신을 위해 큐티 홀로서기

- 강사 : 박대원 목사

생명의 삶을 읽으면서 어렵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보지 못해 이번에 큐티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첫 강의는 큐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배웠다.



글 | 김혜령 집사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조용한 장소에서 『생명의 삶』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나갔다. 마지막 강의는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결단과 적용을 할지 박대원 목사님이 틀을 잘 잡아주셨다. 이번 큐티를 통해 말씀이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개인 큐티도 좋지만, 소그룹 큐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가 영적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동행

6개 찬양대와 2개 특별찬양단이 드린 음영부 헌신예배



글 | 서상희 통신원 (음영부)



5개 찬양대 160여 명이 찬양했다.

6월 16일 주일 오후예배는 음영부 헌신예배로 드렸다. 음영부에 속한 찬양대와 특별단체의 모든 단원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헌신예배는 기존의 연합찬양대의 연합찬양에서 벗어나 음영부에 속한 찬양대 및 특별단체의 특별한 찬양으로 드러졌으며, 어느 때보다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다.

영은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음영부 헌신예배는 음영부 부장 정재훈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다. 채성애 권사가 기도를 맡았으며, 음영부 담당 교역자인 이준희 목사가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여호수아 6:8~16)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목사님의 말씀선포 전, 5개 찬양대가 연합해 찬양했다. “주 하나님, 살아 계신 주”의 찬양곡에 맞춰 찬양대석의 호산나 찬양대와 회중석에 자리한 임마누엘, 시온, 갈릴리, 샤론 찬양대의 연합으로 160여 명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웅장하게 찬양을 올려드렸다.

예배 후 특별찬양시간에는 호산나, 임마누엘, 시온, 샤론, 갈릴리 찬양대와 청년부 여호수아 찬양대, 샤론 여성중창단이 순서대로 찬양을 드렸다. 마지막 순서는 중후한 갈렙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헌신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특별히 엘림여성중창단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은 여성중창단만의 목소리와 선율로 특별한 찬양의 시간이 되었다.

음영부 특별 순서를 마친 후 찬양대 근속자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 10년 근속(12명) : 이명희, 박서영, 박기석, 이재형, 엄미옥, 윤보경, 이윤구, 윤정희B, 이순영B, 최치숙, 허연순, 박찬미
- ② 20년 근속(3명) : 박상신, 김정숙D, 박미자
- ③ 30년 근속(5명) : 방삼일, 양인순, 김현숙B, 전현주, 오신원
- ④ 40년 근속(1명) 공로상 : 박길혜

부족한 찬양의 달란트로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매 주일 찬양의 자리에서 영은의 모든 성도를 만날 수 있길 소망한다.

박길혜 권사 찬양대 40년 근속



박길혜 권사

■ 그동안 거쳐간 찬양대가 여럿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현재는 어느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신지요?

- 1984년 험시바 성가대(당시 4부)를 시작으로 아가페 성가대(당시 1부), 갈리리 찬양대를 거쳐 현재는 사론찬양대(수요)와 임마누엘 찬양대(1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 찬양대에서 봉사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 영은교회 입교 교인인 저는 찬양대에 서시며 집에서 늘 찬송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연스럽게 찬양대를 서게 된 것 같습니다.

■ 찬양대로 봉사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큰 은혜


받으시는지요?

- 매주 드리는 찬송의 가사로 먼저 은혜받고, 여러 달 준비해 드리는 연합찬양을 통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찬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나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 끝으로 40년 소감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믿음의 좋은 부모님과 영은교회 안에서 나고 살아 가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오래도록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취재 : 김경원B 기자〉



전도 노장(老將), 송준근 은퇴장로 <1>

- 장안평기독교신우회를 일으키다 -



글 | 송준근 은퇴장로

토요일이면 코스트코 앞에서 “오직 예수”라는 전도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송준근 은퇴 장로를 볼 수 있다. 올해 나이 93살의 ‘전도 노장(老將)’ 송준근 장로의 전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일평생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송준근 장로님! 지면을 통해 장로님의 전도 이야기를 들어 본다.

■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송준근 장로

송준근 장로는 1931년 평남 강동군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3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부친은 평남 삼합리교회의 영수(장로 밑의 직분)였고 모친은 집사였다. 조부모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6.25 전쟁이 터지자 장로님은 홀로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장남을 잃은 부친은 외이들 장로님을 교회 전도사에게 부탁하며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때 장로님은 19살 청년이었다. 장로님이 피난 내려와 처음 정착한 곳은 영락교회 피난민 수용소였다. 그 수용소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피난 온 누님과 매형을 만날 수 있었다. 남한에서 만난 유일한 가족이었다. 수용소에서 나와서 누님과 함께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후 누님 가족과 서울로 이사와 생활했다. 그때 효창공원에 있는 창덕교회에 출석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매형의 형님이어서 6~7년간 창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 신앙의 위기와 회개

누님과 함께 살던 장로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님 집에서 나와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장로님은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됐다. 누님 집을 떠나 살면서 장로님은 예수님을 잊고 말았다. 교회와는 멀어졌고, 세상의 온갖 죄에 빠져 방황했다. 그러다가 화곡동에 있는 강서성결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 교회에서 장환 목사님을 만난 게 주님의 은혜였다. 장로님은 강서성결교회에서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목사님 앞에서 선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했다.



송준근 은퇴장로와 허정옥 은퇴권사

인천에 살면서 알게 된 허정옥 권사와 결혼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장로님은 삶의 출발선에서 용기를 내어 화곡동에 탁구장을 차렸다. 감사한 마음으로 강서성결교회 장환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개업예배를 드렸다. 장로님은 저녁마다 탁구장 바닥을 닦으

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 세상의 모든 죄 된 것을 끊기로 ‘맹세’ 했다. 다시 죄를 짓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1~6)처럼 현장에서 죽겠다고 맹세의 기도를 했다.

■ 장안평기독신우회를 일으키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로 시작한 탁구장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바닥을 보였다. 장로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하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며 다시 일어섰다. 장로님은 장안평 자동차매매 시장을 찾아갔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그곳에서 중고자동차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밀천도 없이 시작한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영은교회 옆에 있는 한양연립을 2천만 원에 매입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다.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장로님은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 1989년, 장로님은 장안평 자동차 중고시장에 있던 ‘기독신우회’에 들어갔다. 미미했던 기독신우회에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렸다.

A~D 네 개 동 중 입주자가 가장 많은 3층에 방을 얻어서 기독신우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예배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헌금도 많아져 신우회의 재정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장로님은 신우회 회원들과 함께 여러 주민센터를 찾아가 극빈자 다섯 가정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몇 군데 다닌 결과 30가정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장로님은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매달 5만 원씩 후원했고, 장사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한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이 성동구청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장로님은 구청으로부터 표창장과 상품(시계)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그때 만든 신우회는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 올해로 35살이 된 신우회는 장로님의 뒤를 이어 신우회 출신의 장로와 집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로님은 그를 ‘전도 노장(老將)’으로 만든 신우회를 잊지 못한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내 인생의 첫 노방전도

- 전도폭발 수료간증문 -



글 | 추지현 성도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생각 없이 살아온 제 인생에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과 시댁을 만난 저는 신혼생활 내내 하나님께 속상함을 이야기했고 결국 '믿음의 명문가' 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폭발팀을 모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와는 관계없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전도폭발이 떠올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순간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제가 전도폭발을 안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이틀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통해 저를 완벽하게 설득해 내셨습니다.

전도폭발 강의가 시작되고 복음제시 전문을 암송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 것만 잘 외워도 전도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이야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암송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버벅대기 일쑤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제시 예수그리스도부분을 날마다 암송하며 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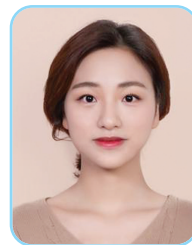
의 그 한없는 사랑이 떠올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 첫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럴수록 성령님께서 기도도로 더 준비하게 하셨고, 훈련자 권사님을 통해 복음제시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셔서 덕분에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와의 약속자체가 많이 귀찮아 보이셨지만 그분의 쓸쓸하고 외로운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이 많이 열리셨고 복음을 들으시고는 이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것과 성경읽는 것을 알려드리니 사모하는 마음을 비치셨고, 7일 후에도 함께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너무 반갑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번이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떠들떠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고 진정 복음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귀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신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글 | 장예은 (팀.초록 팀장)

녹색 제5계명 :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아나바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운동이다. 절약하는 습관은 돈을 아끼는 효과도 있지만, 환경을 보호할 때에도 중요하다.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락까지 아끼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내가 필요한 물건으로 물물교환해볼 수 있다.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제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물건은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쓰레기를 이고 지고 사는 삶이 아닌, 중고장터, 바자회, 플리마켓 등 여러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에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것도 자원을 아끼고 올바르게 순환하는 방법이다. 교회나 회사에서 재생지와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영은, 녹색 십계명’을 선포하며 <영은, 아나바다>를 만들었다.

교회가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물건을 아끼고 서로 나누다면 참 좋겠다. 선물 받은 좋은 옷인데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고민하고 옷장에 걸어만 두다가 결국 버리는 때도 있다. 그럴 때 떠오르는 그 성도에게 선물한다면 어떨까? 새것만 선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 나누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영은, 아나바다>는 월간 계획이다.

1월	친환경 빨대, 컵 홀더 판매
2월	텀블러 중고장터
3월	인형 중고장터
4월	헌 옷 중고장터
5월	책 중고장터
6월	폐건전지 수거
7월	현수막 가방 제작, 판매
8월	화장품 나눔
9월	책 중고장터
10월	이면지 공책 나눔
11월	문구 나눔
12월	나무젓가락 트리 만들기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대체해야 할 물건들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원료 물티슈, 화학 성분 세제 등이 그러하다. 교회가 이러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제로웨이스트 숍”을 운영하여 성도들과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다.

또 우리 집에 쌓여있는 텀블러/책/화장품/문구류 등을 나누고 이 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진 물건을 돌이켜 정리해보고, 내게 필요한 건 딱 하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회 안과 밖에 나보다 이것이 더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당장 그 하나도 없는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영은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영은교회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일정

영아부 7/6(토)~7(주)	영아부실	초등부 8/4(주)~7(수)	십자수 기도원	청년1부 8/18(주)~20(화)	신덕 수양관
유아부 7/6(토)~7(주)	유아부실	소년부 8/7(수)~10(토)		청년2부 8/15(목)~17(토)	화양동 관광농원
유치부 7/13(토)~14(주)	유치부실	중등부 8/7(수)~10(토)			
유년부 7/26(금)~28(주)	유년부실	고등부 8/4(주)~7(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2.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며, 악한 권세를 막아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 송 선 교 사 구용희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일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